

페인트산업 “찾잔속 폭풍”

상반기 페인트기업들의 매출액은 고려화학·조광페인트 등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소폭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반기들어 주요 원료가격의 상승 및 중소기업고유업종 해제에 따른 빠른 환경 변화로 시장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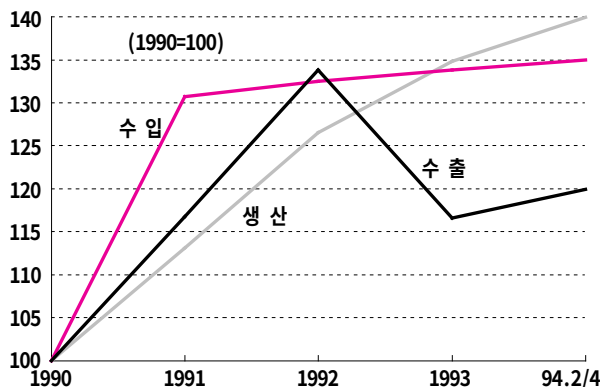
따라서 중소 페인트기업들은 최근의 주요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제조원가의 상승압박에도 불구하고, 페인트 기업의 리더격인 고려화학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화학은 시장지배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기위해 당분간 가격인상을 시도치 않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만 대한페인트링크가 신나류를 비롯해 일부 제품가격을 3~5% 가격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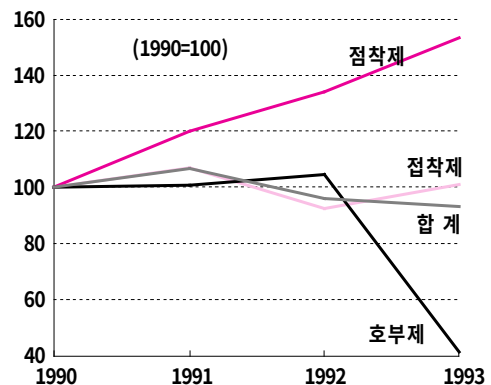
이러한 시장흐름에 편승하고 있는 삼성종합화학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부도기업 또는 경영이 부실한 5위~10위권내 중견기업을 인수해 페인트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접착제 생산은 핫멜트 등 일부 기능성 접착제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도 이러한 현상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국내 페인트 생산지수



【그림2】 국내 접착제 생산지수



페인트 대기업 가격인상 “기피”

페인트산업은 94년 하반기들어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로 중소기업은 위축되고 대기업이 주도하는 산업으로서의 위치가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반기 주요 페인트기업들의 매출액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대기업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것에 반해 중소기업은 보합 또는 정체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주요 수요일산업인 건축경기가 완만한 곡선을 나타내고 기초 원자재가격이 94년 상반기에 상승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급속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중소페인트 기업에게 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는 내수경쟁력 약화요인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20% 전후의 쾌속 성장을 보이고 있어 이 부문용 도료시장은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망되며, 전자산업도 시장이 빠르게 성숙되고 있는 VTR제품을 위주로 한 중국시장 진출이 활기를 보이고 있어 전기전자용 도료를 생산하는 기업도 수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매출액중 자동차 판매액이 29.1%를 차지하고 있는 고려화학은 자동차용 및 컨테이너, 선박용

도료의 매출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1887억70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무려 3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상이익도 325억5000만원으로 76.8% 증가했다.

반면 매출액중 건축용 페인트가 60% 이상의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화페인트는 상반기 매출액이 255억3000만원으로 93년동기대비 21.2% 증가한 것에 반해 경상이익은 8억여원으로 70.6% 감소했으며 순이익도 7억여원으로 96.1% 감소했다.

자동차용 및 컨테이너용 제품가격은 최근 2~3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자동차용이 ㄹ 당 내수가 기준 3836원 수준이었으며 컨테이너 및 선박용도 각각 2036원, 2113원으로 약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건축용은 하향세를 보여 1360원, 공업용도 1967원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가격안정세에 제동을 걸고 있는 요인은 용제 등 주요 원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제조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들어 자일렌·BTX 등이 20%이상 상승했으며 MIBK·IPA·BA등의 각종 용제가격도 15~30%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승세는 하반기에 더욱 기승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요 안료중 하나인 이산화티타늄(TiO2)가격도 상승세를 보여 3/4분기 현재 톤당 1800달러대에 돌입했는데, 이것은 2/4분기대비 톤당 150달러 인상된 것이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돼 이산화티타늄가격이 89~90년의 톤당 2200~2400달러의 높은 가격대로 복귀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경기회복 등에 의한 수급타이트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따라서 원가상승 압박으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소기업은 자금압박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도산기업도 속출해 난립되어 있는 페인트 시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서 고려화학 등이 제품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보여 고려화학의 독과점적 위치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표】 국내 접착제 판매현황

(단위 : M/T, 100만원,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수 량	금 액	구성비	수 량	금 액	수 량	수 량	금 액	증감률	수 량	금 액	증감률
접착제	89,372.8	84,704.7	85.5	95,901.4	89,489.7	7.3	83,002.0	87,419.3	▽13.5	88,901.0	95,953.5	7.1
접착제	3,137.7	4,123.0	4.2	3,821.9	5,247.5	21.8	4,271.2	5,546.9	11.8	5,650.0	7,145.2	32.3
호부제	17,759.0	10,255.9	10.4	17,897.2	10,613.2	0.8	18,603.1	10,119.8	3.9	7,359.0	4,036.9	▽60.4
합 계	110,269.5	99,083.6	100.0	117,620.5	105,350.4	6.7	105,876.3	103,086.0	▽10.0	101,910.0	107,135.6	▽3.7

현재 고려화학의 시장점유율은 93년기준 3212억원으로 페인트기업중 1위를 달리고 있으며 1조2000억원의 전체 시장 중 26.8%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매출규모 2위인 건설화학은 9.0%의 비중에서 그쳐 1위와의 차이가 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9월1일부터 유성페인트 및 수성페인트가 중소기업고유업종에서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시장 참여를 검토해왔던 삼성종합화학·동부화학을 위시하여 선경, 현대 등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인수를 통한 시장진출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이들 대기업들에게는 이번의 시장환경 악화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접착제 국산화 꾸준히 지속

접착제 생산은 큰폭의 증가없이 정체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공업통계에 따르면, 92년기준 국내 접착제 제조기업수는 153개이며 판매규모는 2871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전년대비 3.4% 감소한 것이다.

또 수입은 93년기준 4154만달러로 전년대비 13.8% 감소했으며 수출은 3080만달러로 33.5% 증가해 무역수지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접착제의 수입비중은 57.4%로 크게 낮아졌는데 92년의 67.6%, 91년의 75.3%에 비하면 국산화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조합원에 가입되어 있는 16개사의 생산·판매현황을 보면 국산화를 비롯한 큰 변화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합원사 기준 90년 생산량을 100으로 보고 연도별 지수를 보면 90년의 점착제 생산실적 11만톤, 점착제 3138톤, 호부제 1만7759톤을 기준할 때 91년에는 점착제가 107.1, 점착제 120.2, 호부제 100.8로 호부제를 제외하고 큰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또 93년에는 점착제가 101.0으로 정체 양상을 보이고 점착제는 153.5로 큰폭의 증가를 보인 것에 반해 호부제는 41.4로 점착제와는 대조적으로 큰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4/10/1>